

주민들의 이야기가 쌓여 가는 방들의 도시,

구산동도서관마을

최재원
임상진
신승수

2016 서울시 건축상 대상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구산동 44)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572.90m ²
건축면적	860.64m ²
연면적	2,550.25m ²
규모	지상 5층
높이	14.70m
건폐율	54.72%
용적률	154.9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터구조
설계	최재원, 임상진, 신승수
설계담당	권미리, 하수경
시공	금강종합건설(주)
기계·전기설계	(주)한일엠이씨
설계기간	2013. 7. ~ 2014. 3.
시공기간	2014. 4. ~ 2015. 6.
공사비	약 50억 원
건축주	은평구청



마을의 기억이 찰싹이 쌓인 듯한 구산동도서관마을의 모습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엮인 외부 모습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어도
눈치 보지 않는
도서관, 엄마들이
도서관에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서관,
깔깔거리며
만화책도 보는 도서관,
악기도 연주하고
영화도 보는
신나는 도서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코흘리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서관마을에서
만나고 함께하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마을 안내문 中



© 원근법



© 원근법



© 원근법

상 다층적인 형태의 열람공간
 좌·하 옛 건물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
 우·하 턱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된 경사로



방과 방을 잇는 책복도

외부이던
 기존 건물의 외벽이
 내부화되어
 내부에서 옛 골목의
 풍경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복도를 따라 옛 건물들의
 흔적들을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골목의 기억'이 저장된
 마을 박물관인 것이다.

© 2015



마을 마당이 되는 외부공간

도서관이 된 마을, 마을이 된 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마을에 도서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에서 시작되었다. 구산동에서는 2006년부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있었고, 2008년 구산동도서관 터를 매입하였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잠시 진행되지 않다가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충분치 않은 예산과 기존 마을 골목의 풍경을 살리려는 이유 등으로 신축 1채를 제외하고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2013년 제안공모가 발주된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들이 이때 제공된 도서관마을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잘 담겨 있다. 주민들이 딱딱한 ‘관’이 아닌 ‘마을’로 느낄 수 있는 도서관, 이 도서관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간화하는 것이 이 도서관마을 설계의 시작이었다.

마을의 기억을 담은 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이 들어설 터는 막다른 골목과 그 주변의 건물 8채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오래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건물들은 철거하고 4채의 건물을 도서관마을에 포함시켰다(단독주택은 공사 도중 균열로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개별건물들로 마을을 만들겠다는 공모지침서상 제안의 의도는 좋으나 주택을 도서관 서가로 활용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유모차를 끄는 사용자나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기존 주택들을 활용하되 주민들 누구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였다.

이에 따라 별동으로 제안된 신축건물의 상당부분을 기존 건물들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엮었다. 외부이던 기존 건물의 외벽이 내부화되어 내부에서 옛 골목의 풍경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복도를 따라 옛 건물들의 흔적들을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골목의 기억’이 저장된 마을 박물관이다.

외부에서는 주변에 흔히 쓰이는 벽돌을 신축 부분에 사용하였고, 기존 건물은 방수와 단열 등 기능적인 조치를 하고 신축 부분과 대조시키기 위하여 형태는 남기되 색은 지웠다. 외부에서 기존 다가구의 건물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다양한 의문을 던질 수 있도록 처

© 황규백



상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엮인 외부 모습
하 다층적인 형태의 열람공간



© 구산동도서관마을



상 옛 건물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
하 1층 마을북카페

리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건물 예전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 기억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을의 옛 모습을 간직한 도서관에 마을자료실을 마련하여 구산동뿐 아니라 은평구 역사문화자료를 모으고 있고, 구술채록방에 서는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억을 채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새로 조성될 도서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구산동도서관마을이 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한 독서실 같은 공간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는 점이다. 도서관마을의 위치도 일상공간과 떨어진 공원이나 산자락에 있는 여러 공공도서관들과 달리 주택가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마음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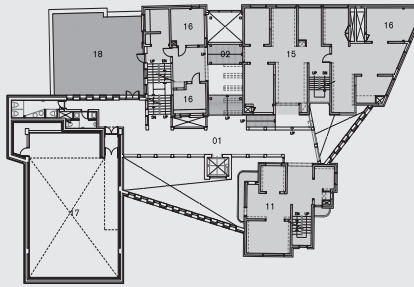
사람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중심공간을 외부에는 마을 마당으로, 내부에는 마을 카페로 마련하였다. 반지하 등 기존 주택들 사이의 높이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단형 열람공간에서 4층 높이의 서가와 기존 벽돌 건물인 만화도서관의 발코니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은평구 출신 작가들의 책과 사서들이 추천한 책이 중심에 전시되고 북콘서트와 전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공간들은 별도의 구획 없이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마을을 오가듯 도서관마을 내부를 거닐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더불어 기존 건물들의 층수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모든 층에 옥외마당이 형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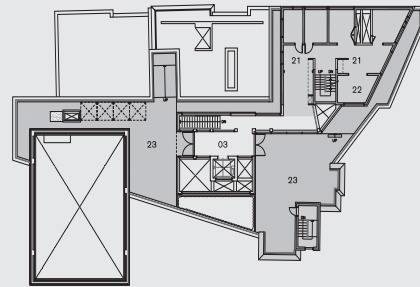
서가가 된 골목, 열람실이 된 방

막다른 골목의 기존 주택들을 활용해 도서관을 계획하는 작업으로 기존의 제약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 미로처럼 얽혀 있는 주택의 무수한 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이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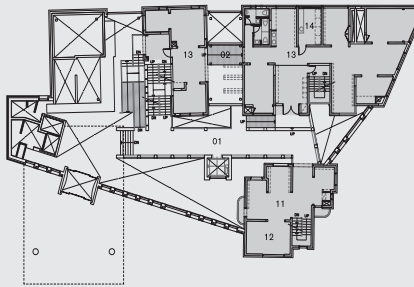
생각 끝에 방들을 단순한 2개의 복도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기존 골목 자리에 신축 복도를 덧붙여 기존 주택들을 연결하고, 주택 내부에는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복도로 방들을 연결하였다.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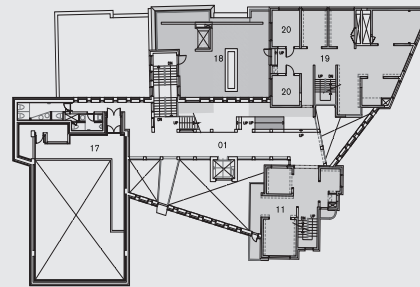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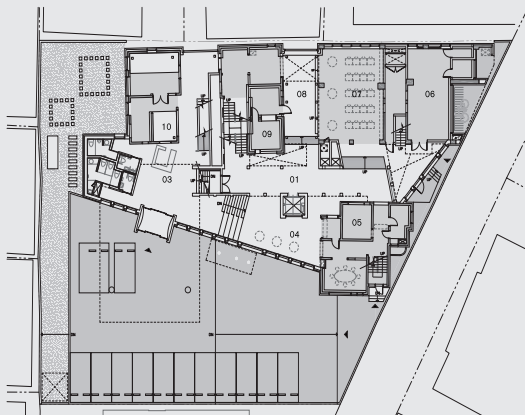
지상5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지상4층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 01 책복도
- 02 열람복도
- 03 홀
- 04 책카페
- 05 정기간행물실
- 06 문화강좌실
- 07 시청각자료실
- 08 음악자료실
- 09 녹음스튜디오
- 10 안내데스크
- 11 만화도서관
- 12 만화상영실
- 13 어린이자료실
- 14 수유실
- 15 청소년열람실
- 16 모독열람실
- 17 강당
- 18 옥외휴게마당
- 19 마을자료실
- 20 커뮤니티룸
- 21 관리사무실
- 22 회의실
- 23 옥상휴게마당



구산동도서관마을 단면도

- 01 책복도
- 02 열람복도
- 03 홀
- 04 책카페
- 05 정기간행물실
- 06 문화강좌실
- 07 시청각자료실
- 08 음악자료실
- 09 녹음스튜디오
- 10 안내데스크
- 11 만화도서관
- 12 만화상영실
- 13 어린이자료실
- 14 수유실
- 15 청소년열람실
- 16 모듬열람실
- 17 강당
- 18 옥외휴게마당
- 19 마을자료실
- 20 커뮤니티룸
- 21 관리사무실
- 22 회의실
- 23 옥상휴게마당

서관과 하중 기준이 다른 기존 주택은 서고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새로 덧붙인 복도를 서고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방들은 이 두 복도로 연결된다. 도서관 사용자는 기존 골목을 오가며 책을 고르고 주택의 방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은 각 주택의 높이와 층고, 벽체 위치 등 기존 조건을 맞추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였다. 실제로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런 제약조건들을 풀어가면서 결정되었다. 직접 현황 측량을 하고, 각 층은 턱이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은 경사로와 승강기를 통해 높이 차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유모차를 끄 부모나 어르신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에도 여전히 복잡함이 있고 일부 이용자들은 미로를 거닐 듯 공간을 배회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면이 이 도서관의 힘이라 생각된다. 책의 이야기뿐 아니라 도서관 곳곳을 거닐며 공간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있는 방들의 도시

기존 주택들의 방들은 대부분 보존되었고 도서관마을의 기본 모들은 방이 되었다. 50개가 넘는 방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계획 당시 이 공간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고, 여러 제안을 하고 주민들과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형태의 공간이었기에 더 신경이 쓰인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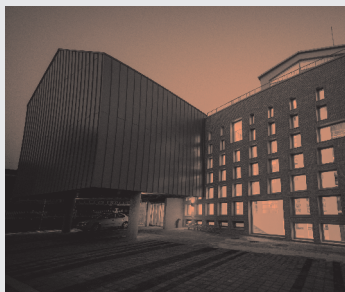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기존 방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공간이나 미디어 자료실 등은 상대적으로 넓은 스펀을 가진 옛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였다. 기존 주택 스케일의 편안함을 지닌 방들은 열람실을 기본으로 토론방, 동아리 활동실,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방 등 주민들의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다. 50개가 넘는 방은 비워진 동일한 방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들이다.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던 방들은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 사용자가 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프로젝트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들을 들었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



상 방과 방을 잇는 책복도
중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는 방들
하 턱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된 경사로



©황구배
부산광역시



상 마을 마당이 되는 외부공간
하 마을북카페를 찾은 주민들의 모습

났다. 건축가는 이미 진행 중인 도서관 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도서관 부지에는 씨앗도서관이 운영되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서관 축제가 주기적으로 열렸다. 설계 과정에서도 답사도 함께 다녀왔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주민들을 대표할 창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50개가 넘는 다양한 방들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거나 설계 중간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공간에 반영되고 실제 작동하는 데는 사용자·발주자·운영자·건축가 등 모두의 이해와 협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존중하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조직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도서관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고민과 과제들을 서로가 모여서 정보와 지식으로 풀어보기 위해 찾는 곳”이라고 한 이종창 구산동도서관 관장의 말은 다양한 과제들을 주민과 전문가들의 협의로 풀어간 도서관 건립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양한 의견과 문제들을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또 하나의 도서관 활동이었다. 특히 주민들은 도서관 마을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동참하고 있었기에 좀 더 쉽게 뜻을 함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될 이야기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단순히 새로 건립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닌 마을에 대한 기억을 존중하고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새로운 기능을 위해 남아 있는 기존 주택과 마을의 흔적을 없애 버리기보다는 도서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였다. 책상이 된 방문, 열람실이 된 방, 책복도가 된 골목, 미디어실이 된 주차장, 토론방이 된 거실, 당시 유행한 재료를 알려주는 건물의 벽돌과 화강석들, 내부로 들어온 발코니, 벤치가 된 기존 건물의 기초 등 그 장소에 남아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이곳이 골목을 오가듯 책복도와 마을마당을 거닐고, 어린이·청소년·노인이 커뮤니티를 이루며 각자의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써 내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